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은 사실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단순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을 주십니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더욱 단순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삶과 인생 가운데에는 늘 염려와 실패가 있고 병과 좌절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에 감사를 더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단순함입니다. 예배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197, 302, 368, 411장 (중 택1)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2025
설
감사예배



오 직 주 님

칠 년 을 하 루 같 이



명성교회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 0 2 5
설 날
감사예배

예배순서

목 도 마가복음 12:29-31 (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 같이

찬 송 288, 301, 408장 (중 택1) 다 같이

성서교육 다 같이

인도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회 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도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회 중: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도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회 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 아멘 -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

성경봉독

빌립보서 4:4-8

인도자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 씀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도자

믿음은 성장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시작해서
복잡해졌다가 다시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 정점에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단순한 믿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다 보면 믿음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